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14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유경철 ☎440-1581 • 담당자 안선영 ☎440-158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정신건강 관리, 인천시가 돕습니다.

- 직장인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사 통해 심층상담 지원 -
- 20~30대부터 자살률 높은 중·장년층이 고루 포함된 사업장 직원대상 -
- 인천시자살예방센터, 인천국제공항보안(주)과 업무협약 체결 -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직장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인천시 소재 사업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4일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사장 우경하)가 직장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제약에 따른 피로·우울·불안·무기력 등을 겪는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고자 기획됐다.

협약내용은 ▲직장인 마음건강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교육 및

찾아가는 상담 진행 ▲홍보협력 및 공동사업 진행으로 향후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임직원 3,4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사를 실시했으며, 우울·불안·자살·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심층상담 등을 지원했다.

직장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의한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직장인의 정신건강 악화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이 가능하도록 직장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20대~30대부터 중·장년층이 고루 포함된 사업장 내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사업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관련 사진은 13시 3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